

문학은 우리에게 통일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강사)



평소엔 잊고 살다가 6월이 오면 문득 맞닥뜨리는 것이 있다. 전쟁의 기억이다.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으니, 올해로 67년이 된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전쟁은 교과서나 다큐멘터리로만 기억하는 사건이 되었다. 6월이 되면 우리의 기억은 저장장치에서 인출되어 읽혀지고 다양한 한국전 기념행사가 끝나면 뇌 회로에 겹쳐 쓰기(re-writing) 방식으로 되돌려진다. 분단이 오래되다보니, 이제 통일 이야기를

꺼내는 걸 지겹다고 여긴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통일을 갈망할수록 우리는 각자의 퇴색된 기억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이 숨 가빠지면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그 본질이 퇴색하기 마련이다. 이제 전쟁을 뚜렷이 기억하는 이는 일흔 후반의 어른들뿐이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듯,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다. 영상에서 '덕수'(황정민 분)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

아본 적이 없는 아버지이다. 그는 한국전쟁이 만들어 낸 아픔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겪은 흥남철수, 베트남전, 파독광부, KBS 이산가족 찾기는 관객들에게 낯설다. 관객들이 태어나기도 전 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일로 가는 길목에 선 오늘날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는 더 중요하다.

기억에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프고 불편한 기억도 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어떤 이에겐 가족을, 어떤 이에겐 재산을 빼앗아 갔다. 수많은 이들이 예기치 않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희생되었다. 재산, 가족, 건강한 신체, 친구를 빼앗긴 이의 마음엔 미움과 증오, 고통과 절망이 자리한다.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1951)은 한국전쟁의 실상을 보여 준다. 겨눈 총부리 앞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위태롭게 서 있다. 이 그림은 1950년에 10월에 일어난 신천군 학살 소식을 듣고,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다. 피카소의 그림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념이란 걸 보여준다.

세상엔 기억이 가르쳐주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웨딩 사진을 찍어 본 사람이라면 웨딩 사진이 아름답지만 커플마다 비슷하다는 걸 느낀다. 모든 사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웨딩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순간을 포착한 이미지는 확고한 증거가 될 수도 혹은 진실을 오도할 수도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Svetlana Alexievich)가 있다. 인간이 자초한 제2차 세계대전과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다룬 작품을 쓴, 벨라루스 국적의 소설가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념에 물든 내용을 걸러내야만 인생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여긴다.

알렉시예비치가 쓴 소설 중에 『아연 소년들』이 있다.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를 다룬 작품이다. 1979년 12월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 100만 명이 죽었다. 이들을 희생시킨 주체는 소련 병사들이었고, 그중 다수는 소년병이었다. 당시 소련의 미디어는 이들을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작가는 이들을 살인자라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에 참전병 어머니들이 분노했다.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자식이 영웅으로 기억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영웅이었던 알렉산드르 레베디 장군은 나중에 이렇게 후회했다.

“우리가 시작한 전쟁은 고귀한 이상을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은 민중을 적으로 삼은 전쟁이 되어 버렸다.”

통일은 정말 어려운 숙제이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거나 이산가족상봉을 할 때면 통일이 가깝게 느껴진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핵개발, ICBM 탄도미사일,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 같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되물게 된다. ‘우리는 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통일을 꿈꾸듯 그들도 통일을 꿈꾸고 있을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짝사랑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언제쯤 통일독일이 느꼈던 기쁨을 맛볼까. 짐착과 잘못, 덧없고 부질없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한다. 이념에 물든 내용을 걸러내고 진실만을 추려내야 한다는 뜻이다.

1989년 11월 10일 베를린 장벽이 처음 무너졌다. 그리고 얼마 후 45년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갈라져 있던 베를린이 다시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오랜 기도와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통일은 환희를 안겨 주었다. 장벽은 철거되어 역사적 기념물로 남아 있다. 또 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동독출신인어서 동서 통합의 의미도 준다. 하지만 그늘도 있다. 동독교사 출신인 브리기타 하인리히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지금까지 사귄 서독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댈 수 없다. 정말로 그들과 사귄 수 없었다.”

오랜 분단 끝에 월남과 북베트남이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전쟁 이후 그 누구와도 섞일 수 없었다. 베트남, 한국, 미국의 수십만의 젊은 청년들이 아무런 원한이 없이 서로를 증오했고 죽였다. 베트남 작가 바오 닌(Bao Ninh)은 “정치권력에 속아 서로를 적개시하고 살육을 저질렀[다]”고 말한다. 30여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바오 닌은 『전쟁의 슬픔』에서 지금은 잊힌 그리고 반쪽기억으로 남은 베트남 전쟁을 이렇게 묘사한다.

“산도 여전했고, 숲도 여전했고, 개울 또한 변함이 없었다 ...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랴곤,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지금은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뿐이다. 한 번 뿐인 생애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

우리가 그들을 보듯이 그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까

지금 베트남전뿐 아니라 한국전쟁도 서구의 기억에서 모두 사라졌다. 30여 년 동안 프랑스 미국과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베트남 인들은 전쟁을 자신과 세계와의 대결로 이해했다. 이런 시선은 문학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전쟁기간에 쓰인 소설들은 오직 스탈린의 소련문학과 모택동문학만을 보고 배웠다.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영국, 스페인, 독일 문학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작품 속엔 적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만이 가득하다. 1970년대는 어둠의 시대였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시인 T.S. 엘리엇은 한 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탐험을 그만두면 안 된다./ 모든 탐험의 목적은 하나다./ 우리가 떠난 출발점에 도착하

여/ 처음으로 그곳을 아는 것이 탐험의 목적이다.” 우리가 잘못 깬 분단이란 첫 단추를 다시 맞추려면, 증오와 적개심을 키웠던 교육을 생각을 다시 되짚어야 한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이루려면 분단이 주었던 아픔이 아니라 통일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심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김민기의 노래 「작은 연못」은 통일에 대한 우화처럼 느껴진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위로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독일의 역사교육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다. 인간의 모순성을 미국의 비평가 손택(Susan Sontag)은 고통이란 주제와 연결시킨다. 전쟁이다. 모든 전쟁은 죽인 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도 예외가 아니다. 서사적 폭력은 고대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에도 나타난다. 독일의 시인 엔첸스베르거(Hans M. Enzensberger)가 지적하듯, “인간은 계획을 세워 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죽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유일한 영장류이다.” 우

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생이란 우리가 소망한 것보다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다. 실패와 좌절이 완전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을 열기도 한다. 이것이 역사에도 나타나는 것 같다. 냉전 혹은 증오란 선글라스를 벗게 되자, 미군 병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것인지를 묻기 시작한 것이다. 비슷한 질문을 한국작품에선 최인훈이 『광장』에서, 묻고 있다. 작가는 당시 한국 사회가 하나의 큰 취조실이었음을 보여주며 분단 상황의 아픔을 환기시킨다. 임진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DMZ 철조망 너머로 남과 북은 멀어져만 간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분단을 겪었던 독일은 이제 서로에게 꽃이 되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룬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독일이 분단 이전에 겪었던 과거의 경험도 큰 몫을 한 것 같다. 분단 이전에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Holocaust)란 죄를 지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독일인들은 홀로코스트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국가간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독일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최호근의 『독일의 역사 교육』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독일의 역사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전쟁 및 홀로코스트의 3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온정을 베푸는 공감의 능력을 배양한다.
2. 자율성을 육성해서 깊이 생각하고, 양심에 입각한 주관에 따라 행동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3.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집단악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방조자까지도 자신과 연관이 있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로 가는 첫 걸음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역사의 첫 단어는 폭력이며 이것이 마지막 단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문제는 그 두 단어 사이에도 같은 단어가 자주 반복될 것이란 사실이다. 공공연하게 핵위협을 가하는 김정은 정권을 볼 때, 통일은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국엔 스트롱맨뿐이고, 외교마저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어서, 패닉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작가 발자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조언한다. 시인 프로스트는 나무들의 “간헐 싹 속에는 ... 장차 여름 숲이 될 것이 숨어 있다”고 쓴다.

정치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 통일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봄이 되면, 먼 북쪽에 쌓인 눈도 사라지고, 새잎이 꺾질을 찢고 나와 바람에 흔들린다. 우리의 통일도 봄날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가슴에 마저 미움과 증오를 쌓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학은 아무 힘도 없는 허구이지만, 종종 많은 것을 바꾸곤 한다. 소설가 정용준은 이렇게 고백한다. “소설이 세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은 바꾼다. 쓰는 자도 읽는 자도 바뀐다. 경험으로 깨달은 유일한 믿음이다.” 나는 이 믿음이 좀 더 많은 사람들 속에도 자리 잡길 소망한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다.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